



광주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이 운영하는 '시민그림책 학교' 전시회 '민들레 흠씨처럼' 전(30일까지 도서관 작가의 방)에서 만나는 다양한 소재의 그림책.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다...삶의 소중함을 전하다

광주시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에 가면 도슨트 박세영씨의 안내를 받아 찬찬히 도서관을 둘러보아야 한다. 그림책 전문 도서관인 이야기꽃도서관 공간 구성이 모두 '스토리'가 담겨 있다. 그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도서관 구경을 하다 보면 꼭 '이야기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든다. 박씨가 직접 기획한 '너에게 초록 향기가 나' 전에는 '초록'을 소재로 한 온갖 그림책이 한가득이고, 실 수 있는 해먹도 놓여있다.

최근 들어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그림책에 관한 관심이다. 그림책은 아이들만 읽는 책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그림책 읽는 어른들이 늘고 있고,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볼 수 있는 강좌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16년 개관한 이야기꽃도서관은 2017년부터 길위의 인문학 사업과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꾸준히 그림책 만들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동네, 광산', '아빠들의 그림책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금까지 시민그림책 56권을 발행했다.

이야기꽃도서관 30일까지 '시민그림책-민들레 흠씨처럼' 전 일반 주민들 '노란길' '고양이' 등 10권 제작...6월 참가자 모집

박 씨의 안내로 지난해 제작한 시민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 장, 2층 작가의 방을 찾았다. '시민그림책-민들레 흠씨처럼' (30일까지) 전에서는 지난해 주민들이 제작한 그림책과 원화, 스케치, 스토리 북 등을 만날 수 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에 전시된 작품은 '노란길' (권미지), '엄마의 작품' (김라영), '고양이' (나상경), '나는 무슨 꽃일까?' (서유나), '사색의 시간' (유봉순), '도장' (신수련), '사랑의 숨결' (이슬비), '아이의 학교' (장소영), '캠핑 스토리' (최정숙) 등 모두 10권이다.

30~60대 '시민그림책 학교'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그림책은 소재도, 제작 방법도 다양하다.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한 이도 있지만 대부분 책 쓰기, 그림 그리기를 처음 해 본터라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 처음에는 헤메기도 했다. 길라잡이가

되어준 이는 강진에 거주하는 오현경 그림책 작가와 김장성 이야기꽃출판사 대표로 12회차에 걸쳐 비대면, 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함께 그림책을 만들어 나갔다. 특히 그림책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는 김 대표가 강사로 참여하면서 그림책 편집과 출판 등이 훨씬 수월하게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본인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가족의 스토리를 주제로 삼고, 나아가 사회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며 스토리를 썼다.

다양한 모습의 하늘이 등장하는 '엄마의 작품'은 김라영씨가 투병중인 엄마를 생각하며 쓴 책이다. 파란하늘을 그리던 '엄마가 나 보고 그려 주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흐린날을 그리 때는 '엄마가 쉬는 날인가'하는 마음을 담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신수련 씨의 '도장'은 인생의 과정을 직접 판 도장을 찍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책

이다. 도장이 삽화 역할을 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권미지씨의 '노란길'은 보도(步道)에 그려진 시각장애인용 안내 기호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최근 장애인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오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수강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하며 직접 꾸린 기획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들은 그림책 제작의 성과를 보여주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마음과 작은 것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민들레'를 주제로 공간도 '그림책을 만드는 것처럼' 꾸몄다.

이야기꽃도서관은 올해도 오는 6월부터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윤옥 이야기꽃도서관 관계자는 "그림책 만들기 참여자들에게서 심화 과정을 열려달라는 의견을 들곤 하는데 동아리를 꾸리는 등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이라며 "그림책 만들기 관심이 높아 앞으로도 꾸준히 프로그램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신임 전당장 직무대리에 최원일 전 국립현대미술관 단장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신임 전당장 직무대리에 최원일(사진) 전 국립현대미술관 단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전당장 직무대리는 오는 9월 시행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맞춰 ACC의 조직 재정비를 비롯해 옛 전남도청 복원 등 주요 계획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한 최 전당장 직무대리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지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가치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수묵과 채색의 경계를 넘나들다...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한국화가 김대원 초대전, 4월 4일까지 화순 석봉미술관

다채로운 색의 향연 속으로 들어서는 기분이 든다. 전시장에 매달린 족자 형태의 그림 아홉 점은 한 점의 설치미술처럼 보인다. 추상적 기호들이 자유분방하게 뿔어나가며 리듬감을 부여하고, 종이에 스며들고 어우러진 독특한 번짐과 색채감은 강한 인상을 남기며 한 없는 자유로움을 선사한다.

한국화가 지암(芝菴) 김대원(조선대 명예교수) 화백 초대전이 오는 4월4일까지 화순 석봉미술관(화순읍 진각로 249-8)에서 열린다.

전시 주제 '경계의 확장'처럼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 구상과 추상, 수묵과 채색 등 가로막는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작업한 작품들을 만나는 기획전이다. 그는 한국화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과 수묵의 정신을 이어가되, 자신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소통을 염원하며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작업을 확장해 온 작가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김 화백은 회화 문장 호 선생을 만나며 한국화를 배우게 되고, 관념산수를 거쳐 실경산수의 세계로 넘어가며 자신만의 한국화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

전통의 재해석은 탄탄한 기초 위에서 빛을 발한

다. 1990년 중반까지 몰두했던 사생(寫生)을 바탕으로 그는 지필묵의 한계를 벗어나고, 서양화의 매력을 접목시키며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 나간다. 한국화에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아크릴과 과슈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추상 기법도 적극적으로 차용한다.

이번 초대전 전시작은 2017년부터 2020년 작품이 주를 이룬다. 대학에서 정년 퇴임 후 한국화의 '본질'을 묻고, 전통의 재해석에 관심을 가져온 그는 다시 수묵 채색 작업에 몰두하고, 색채감을 덜어낸 수묵 본연의 세계도 새롭게 탐구하기 시작했다.

전시작에서 두드러지는 건 색감이다. 한국 전통 색채감 뿐 아니라 인도의 평민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컬러감과 고색창연한 건축물과 퇴색된 주거환경에서 발견한 고유한 색감, 티벳의 고원에서 녹아내리는 방하수의 투명한 에메랄드빛, 메마른 사막의 풍광, 네발이나 티켓 성지에 숨어있는 불교 미술의 색채감이 어우러진 결과다.

작품에 등장하는 점, 선, 면, 색은 서로 긴장감 있게 겨루면서도 어우러져 있으며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돋보인다. 색을 거의 빼



화순 석봉미술관 김대원 초대전 모습.

고 여백의 미를 강조해 먹빛 수묵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별 헤는 밤' 연작은 수묵 담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또 하나 즐거움은 인도 등 다양한 여행 현장을 소박하게 표현한 스케치 작품들이다.

작가는 전시 소개 영상에서 "인생의 기쁨과 슬

픔, 죽음과 생의 무상함, 사랑과 환희 등의 주제로 작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늘 관건이다. 보편성과 개성, 전체와 개인, 영원과 순간, 사유의 폭을 넓히며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키고 싶다"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에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 선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제6대 이사장에 김덕진(사진) 광주교육대 교수를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김 이사장은 역사 전문가로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을 맡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대안교재 편찬 위원 및 집필진으로 활동했다.

제13대 광주교총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이사장은 "지난 2005년 재단 창립 이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은 지역의 시민문화재단을 견인하고 기반을 닦는 큰 역할을 했다"면서 "다양한 연대 사업을 통해 광주 정체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재단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임원진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문화 조사 연구 ▲시민문화 사업 ▲시민주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시민문화운동 전문성과 대안 강화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